

2018년 10월 22일,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노인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
김장옥(여, 1932년생, 제주시 삼도2동)

-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광복 후 귀국하였다. 그러나 4·3 사건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6·25전쟁이 터지자 제주도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삼도2동 무근성에서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할아버지가 소를 찾으러 밥을 싸서 목장에 갔는데 며칠간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. 그러다 산에서 잠이 들었는데 붉은 불이 앞에 왔다 갔다 해서 다음날에 확인해 보니 말뚱이었다.

[제보자] 할아버지가 소 일러불언. 목장에 소 찾으러 갔는데 무신 겨우파. 동그랑 창에 밥 싸고, 텨장 훈 숟가락 담고, 산에 올라갔는데, 아니 밤에 그냥 무신 거 산에 가든 잠잘 거 아니우파.

메칠 멧날 소를 찾젠 허난 찾지 못허니까, 산에서 놀이 산에 강 잠자는데 앞에 그냥 벌건 불이 왔다리갔다리 왔다리갔다리 허난 잠은 못 자고

“아, 이 요놈 불이 왜 나를 이렇게 조들르냐.”

헤서 탁 잡으면 아무것도 없고, 탁 잡으면 아무것도 없고.

경허영 아침에 일어남 보난 그것이 다 말뚱방울.

젠디 이젠 산에 가도 그런 말이 엇어마씨.

- 핵심어: 할아버지, 소, 목장, 불, 동그랑(도시락), 잠, 말뚱, 산